



관덕정

2017년 3월 28일(통권 제79호)

41967 대구광역시 중구 관덕정길 11(남산동) 전화 : (053)254-0151
팩스 : (053)253-0666 e-mail : daegusaint@gmail.com
홈페이지 : <http://www.daegusaint.org>



십자가와 새 생명

1867 겨울, 150

송 춘 자(마르첼리나)

홍보위원회

마지막으로 음식 세 상이 차려졌고 먹으라고 하였다.
김 회장 형제가 슬픈 기색으로 음식을 먹지 않으니 그러지를 말고 음식을
먹자 하고 회광이가 땅에 네 말뚝을 박으니 이만큼 박으라고 가르친다.
주머니에 있던 돈을 회광이에게 주며 단칼에 치라고 이르신 후 대구 남문
밖 관덕당에서 치명하였다. 때는 병인년 음력 선달 십육일이었다.

이윤일 성인께서 평생 원하신 천주님을 모시려고 영광스러이 순교하셨던
1867년 1월 21일, 이제 성인이 가신지 올해로 150년이 된다.

관덕정에서는 스물여섯 번째 맞는 성이윤일 요한제를 준비하며 3일간의 정성
들인 기도와 특강, 그리고 이윤일 성인 순교 15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했다.
3일 기도 특강 강사로 모신 분들은 모두 이윤일 성인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신
분들이다. 첫날 강의를 해주신 구본식(안드레아) 신부님은 본 기념관의 관장을
두 차례나 역임하시면서 이윤일 성인의 순교 정신을 현양하고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이윤일 요한제의 초석을 놓으신 분이시다.

둘째 날 강의를 맡아주신 최홍길(레오) 신부님은 1986년 교구 홍보국장으로서
재임하실 때 이윤일 성인 유해 이장에 따른 묘소답사와 분묘 발굴, 이장 과정에
관하여 책임을 맡아 일하셨다. 셋째 날 김길수(사도요한) 교수님은 이윤일 성인의
유해를 대구로 모시고 올 때 평신도 위원으로 현지답사와 발굴과정에 참여하
셨다. 세 분 모두 30년 전 이윤일 성인과의 만남을 교우들에게 열성껏 들려주셨
다. 1월이라 쌀쌀한 날씨였지만 열심한 교우들이 관덕정의 성당과 뒷좌석까지
도 가득 메우고 열심히 기도에 임했다. 3일 기도에 함께한 신자들은 성인의 묘

를 찾기 위해 무한히 애썼던 과정, 우리 교구의 유일한 성인의 묘를 찾아 교구로 옮겨왔을 때의 그 기쁨, 그리고 성인의 친척들을 찾아 수소문했던 사실들을 새롭게 듣는 기회가 되었다.

성인의 묘를 찾으려고 계획했을 당시 교구청에 계셨던 최홍길 신부님은 성인의 묘와 관련 있는 연고자를 찾아 이곳저곳 수소문하며 무한히 애쓰시고 또 현지답사를 하며 결국 성인의 묘가 있는 곳을 찾아 성인의 묘임을 확인하고 그 유해를 우리 교구 성모당에 모셨을 때의 그 어려움이 많았던 과정을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그때의 그 감격스러움도 덧붙이셨다. 두 분 사제와 김 교수님의 특강은 종전과는 달리 성인의 유해를 우리 관덕정 제대 아래 모시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하셨다. 그동안의 많은 수고로움이 있었기에 무명 순교자 묘로 남아있던 성인의 묘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대구대교구의 이문희 바오로 대주교님께서도 성인의 유해를 찾아 우리 교구로 모셔오는 일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어 교구의 수장으로서의 최선을 다하셨다고 했다. 성인의 유해를 미리내에서 우리 교구 성모당으로 모셔왔을 때 이문희 주교님께서도 눈시울이 붉어지셨다고 한다.

그동안 성인의 묘소를 잘 찾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마음, 묘소를 찾기 위해 애쓰신 수고로움, 성인의 유해를 찾아 성모당으로 모셔왔을 때의 그 기쁨,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벅찼으리라.

이제 우리 교구의 유일한 성인의 유해를 관덕정 제대 아래 모시고 있다.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께서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관덕정 성당 제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큰절을 두 번씩 하시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본다. 주님께 감사와 성인께 대한 간절한 마음을 떠올린다.

성인께서는 그 삶의 아픔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주님께 찬미 드렸고, 주님만이 자신의 전부임을 알고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으셨다.

성인께서는 1815년 충청도 홍주에서 태어나셨고 박해를 피해 경상북도 문경의 중평리 여우목에서 전교 회장으로 계시면서 그 동네의 사람들에게 전교하여 교우촌으로 형성하셨다가 1866년 병인박해 때 잡히시어 상주 감영에서 사형관

결을 받으시고 1867년 1월 21일 대구 관덕정에서 순교하셨다.

“1867 겨울, 150”은 제26회 성 이윤일 요한제의 표어다. 1867은 바로 성인께서 순교하신 연도를 표현함이고, 겨울은 1월의 엄동설한에 순교하심을 표현함이다. 원표는 연속성을 나타내고 150은 성인께서 순교하신 지 150주년이 됨을 숫자로 직접 표현했다.

우리는 순교자를 생각할 때마다 “순교 신심”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고개 숙인다. 순교자들은 순교를 최대의 기쁨으로 승화시켰다. 박해를 당하며 가해지는 고통의 삶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위한 죽음이 큰 기쁨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아픔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생각했다. 주님께로 향한 마음은 육적인모든 고통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자신을 온전히 바쳤다. 그분들의 삶은 자신보다 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고, 자신은 헐벗어도 내 이웃의 따스함을 먼저 생각했다.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랑으로 승화된 삶이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자. 입으로는 순교 신심을 스스로없이 말하지만 내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도와준 일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손을 잡아주기를 바라는 이에게 얼마만큼 자신이 함께했는가? 육적이건 영적이건 나 자신이 우선이고 내가 남보다 앞서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가?

이제 나를 조금만 낮춰보자. 그리고 내 주위를 한 번 더 돌아보자. 내 이웃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사랑해 보자. 나부터 고개를 숙이자.

성인께서 지켜주신 신앙을... 성인께서 교훈으로 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순교자들의 순교 신심을...

성인이시여! 가련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1867 겨울, 150

영광의 순교자 하느님 사랑에 물들다

-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읽고 -

이 유 정(아네스)

두류성당

문득 올려다본 가을의 하늘빛은 청명함을 머금고 높기만 하여 과연 저 끝까지 닿을 수 있을까? 이런 벅찬 의문마저 들게 만든다. 부드러운 손길로 불을 어루만지는 바람, 따스하게 내려앉는 한 줌의 햇살, 그리고 온몸으로 퍼지는 가을의 향기.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며 배려일 것이라 생각하니 감사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지금 바로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특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끝끝내 지켜낸 그들의 의로운 덕행의 빛까지 더해져 가슴을 뜨겁게 적시는 무언가 느껴진다.

책을 통해 들여다본 124위 중 20위 복자의 삶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의 박해와 고통의 순간들이 처참하게 전해지는 듯, 책장을 넘기는 손은 무겁기만 하였다. 어찌하여 그들은 인간이 감내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형벌과 고문을 견디며 하느님의 말씀과 진리를 증거 하려 했을까? 그것을 가능케 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으로 인해 그들의 굳건했던 심지가 흔들리게 되는 순간들은 또 한 번 그들 스스로 배교의 멍에를 짊어진 채 살아야 했던 참담한 기억들이 아니었을까? 주님을 따르는 선한 이들에게 덧씌워지는 가시관 같은 불명예와 신앙을 품을수록 가해지는 어둠의 핏빛들은 왜 거두어 주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리고 꾀목에 얹드리기 전 십자성호를 그을 수 있는 그 담대한 신심은 어디서 나온다는 것인가? 그분들의 삶에 걸어 들어 갈수록 나도 모르게 호소하듯 질문들을 쏟아내었다.

우리 각자의 삶이 각각의 이야기를 쓰고 있듯이 20위 순교자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저마다의 사연들은 가슴속에 하나씩 박혀 여러 가지 빛깔들의 장면을 빚어 내며 송고한 아픔을 그려내고 있었다.

나약하고 모순덩어리인 것이 인간이라 하면 거기에다 신체적 장애까지 가해진다면 그 불편한 삶을 행복하게 여기는 삶으로 승화시키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를 봉헌한 신앙인인 김시우 알레시오와 순교이야기는 더 더욱 남다르게 다가왔다. 자신이 불구이기 때문에 잡아가지 않는 포졸들을 향해 “저도 천주교 신자입니다.”라고 외치는 절규의 몸부림은 나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키며 나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었다. 언제, 어디서든 저렇듯 굳건한 용맹스러움으로 말할 수 있는가를! 가슴에 타오르는 열정의 무게가 얼마인가를!

부모님의 사랑이 깊이를 측정할 수 없는 심해의 수심과 같듯,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한 무한한 자비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끝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의 세상에 다시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보여준 김윤덕 막달레나와 고성대 베드로 두 순교자의 회심은 두 팔 가득히 사랑을 품고서 애타게 고대하고 계실 그분께 발걸음을 돌리고픈 결의를 다지게 한다. 어디로 향해야 할지 방황하는 삶의 궤도 안에서 올바른 목적과 방향의 참된 길을 제시해주는 길잡이 같은 존재의 발견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일 것이다. 그러한 또 한 분을 만났는데 김종한 안드레아 순교자의 가르침이다. 하느님을 섬기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라고 노래하는 어느 시인의 시구처럼 영광스런 순교로 나아가는 길이 축복이자 은혜라 여기는 순교자의 말씀은 영광스런 죽음으로 천국에 들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은 어떤 믿음보다도 단단하여 저 믿음의 반 아니, 그 반의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면 이 깨달음은 그리스도 신앙인으로서 모든 교리와 지식을 망라한 큰 진리를 얻는 것과 같을 것이다.

20위 순교자들의 겸손한 영혼들의 덕행과 미덕을 이 짧은 백지 안에 감히 모든 것을 열거할 수 없을 것이다. 남보다 먼저 나를 내던지는 삶, 단순하고 우직한 충정의 신앙인, 온화하고 심지 반듯한 절개의 표상들, 참으로 세속을 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꿈꿨던 그들,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며 공동체의 등불이 된 이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그 이름을 부르며 그리며 절망의 순간을 희망의 맹세로 꽃피운 이들의 가늠할 수 없는 하느님 사랑.

이처럼 진정한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어 낸 신앙 선조들의 희생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나선 불멸의 사랑이었으리라.

지금 내 어깨 위로 부서지는 눈부신 빛이 그들의 삶을 영롱하게 비추어 짧지만 고귀했던 날들은 이 순간까지 후세의 그리스도 신앙인들의 가슴 한 곳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칼입니까?' 나의 신앙이 진실 되었던가를 되돌아보는 길목에서 선연하게 떠오르는 이 성경 구절은 손끝에서 가슴까지 먹먹함으로 젖어 든다.

처절했고 참혹했으나 그 끝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전 생애를 통해 몸소 보여준 순교자들의 뜨거웠던 삶, 지금은 눈으로, 가슴으로밖에 담을 수 없지만,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광과 찬미를 드릴 수 있는 그 날을 꿈꾸며 영혼까지 담을 수 있길 기도드린다.

가시밭길에 스스로를 버리고 태워서 마침내 활짝 피어진 순교의 꽃들이여, 철혹같이 어두웠던 고통의 길을 오로지 신앙으로 무장하여 당당하게 걸어갔던 승리의 용사들이여!

이제는 구원의 빛이신 주님의 품 안에서 새로이 태어난 부활의 증인이여! 지상에서 가을빛이 물들어 가는 밤하늘, 아름다운 영혼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이 순간 살며시 눈을 감으며 고요히 읊조려본다.

허영엽 신부의 성경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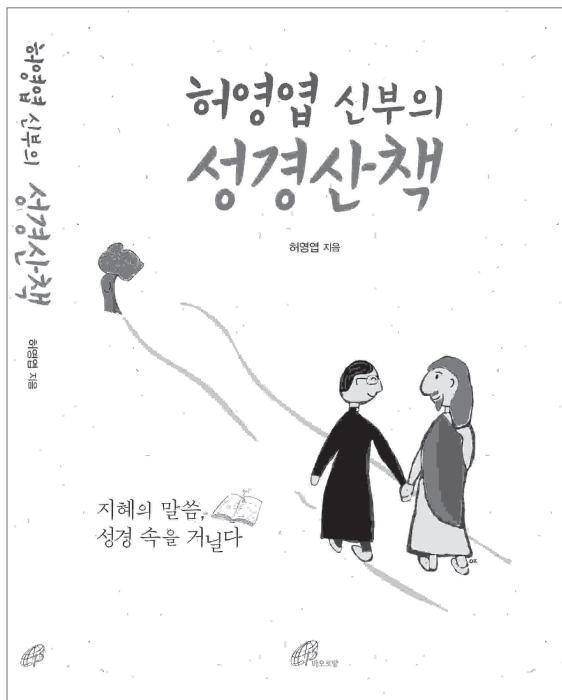
(허영엽 · 임의준 그림 / 바오로딸 2017)

햇살이 화사하고 여기저기 봄의 전령이 보내는 초대장들이 도착하면 설레는 맘으로 산책을 나서게 된다. 무심하게 지나쳤던 주변 환경도 둘러보면서 ‘아, 이곳에 이런 것도 있었네!’라고 작고 큰 감탄을 하다 보면 생각지 않게 멀리 나왔지만 피곤한 줄도 모른다.

친근한 삽화가 그려진 책이라 재밌을 것 같아 얼른 집어 들었다. 『허영엽 신부의 성경산책』!

책장을 넘기며 임의준 신부의 삽화가 마치 봄의 전령이 보내는 초대장처럼 다가왔다. 초대장의 손짓에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는데, ‘어~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었네!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 나를 본다.

저자인 허영엽 신부는 서울대교구 홍보국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성경을 더 친밀하게 느끼고 말씀에 맛 들일 수 있을까 궁리하다, 서울주보에 ‘성경산책’ 코너를 만들었다고 한다. 성경산책은 성경 풀이를 다



해주고 읽는 사람들은 그저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수동적인 글이 아니었다. 저자는 산책길 이곳저곳에 위트 있는 안내문만 남기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살짝 모습을 감췄다. 주보를 읽는 신자들은 성경산책의 즐거움으로 매주 산책길을 나섰고, 2년의 성경 산책 안내문들이 모여 이렇게 친밀한 얼굴을 한 책이 되었다.

책을 읽다가 산책길에 여러 번 마주친 한 가족의 모습이 겹쳤다. 처음엔 칭얼대며 걷기 싫다고 자주 탄지를 부리던 아이가 어느 날은 신천 산책길의 다양한 것들을 발견하고 소리치며 앞장서 건너나 달리더니, 그 후에는 그것이 왜 그곳에 있는지 묻고 또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엄마 아빠와 다정하게 걸어가던 모습이었다.

『허영엽 신부의 성경산책』은 마치 그 아이의 부모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자들이 성경을 직접 찾아 읽고 퀴즈처럼 문제를 풀어가면서 성경이 어렵지마는 않다는, 오히려 쉽고 재미있다는 것을 깨달아 말씀과 친숙해지도록 돕는다. 성경 통독을 하고 싶지만 엄두를 못 내거나,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아직 마치지 못했다면 이 책과 함께 새롭게 성경 산책을 나선다면 어떨까 싶다. 아마도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의 배낭을 지고 무겁게 오르는 산행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집 주위를 걷는 산책길처럼 그렇게 친근하게 성경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결심하고 준비하느라 시간을 끌 필요도 없이 가볍게 운동화만 갈아 신고 잠시 산책하듯 그렇게 매일 성경을 산책할 수 있을 것이다. 혼자 때로는 가족과 함께!

■ 제26회 성 이윤일 요한제를 위한 3일 기도 특강과 미사

제26회 성 이윤일 요한제를 지내며 1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관덕정 순교기념관에서 3일 기도 특강 및 미사가 있었다.

구본식(안드레아) 신부님(현 성서 성당 주임), 최홍길(레오) 신부님(원로 사제), 김길수(사도 요한) 교수님께서 특강을 맡아 주셨다. 특강을 시작하기 전 교우들은 묵주기도를 하며 마음을 모았고 특강 후에는 미사가 봉헌되었다. 3일 기도 동안 이윤일 성인을 대구에 모시게 된 경위와 성인을 현양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듣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구본식(안드레아) 신부님



최홍길(레오) 신부님



최호철(안토니오) 신부님



김길수(사도 요한) 교수님

■ 성 이윤일 요한 순교

150주년 기념미사

지난 1월 21일(토) 오전 11시 계산 주교좌 성당에서 성 이윤일 요한 순교 150주년 기념미사가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의 주례로 봉헌됐다. 조 대주교님은 강론을 통해 이윤일 성인의 순교 이야기와 성인을 교구 제2 주보 성인으로 모시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성인께서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도 순교자들처럼 이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기도하자고 하셨다. 이날 미사에 참례하신 분들을 위해 1986년 미리내 무명 순교자묘지에서 이윤일 성인 묘를 발굴했을 때 나온 십자가를 본떠 만든 십자가 모형을 기념품으로 선물했다.



■ 교회사 강좌



김태형(베드로) 신부님

2월 4일(토) 김태형(베드로) 신부님께서 순교와 이윤일 성인의 영성에 대해 특강을 해주셨다. 여기 이 세상 안에서 지금 현실 안에서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방법은 사순절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안에서 단식하고 보속하고 십자가의 길 기도하고, 희생하고 애급하는 것,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순교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하셨다. 또 이윤일 성인의 가장 대표적인 영성으로는 평화와 온유함을 이야기하셨다. 이윤일 성인은 내적인 평화와 온유한 마음을 간직하고 사신 분으로 우리 교구의 제2 주보이신 성인을 본받아 교구민 모두가 자신의 덕행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끊임없이 닦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셨다.

■ 사순 영성 특강



한상우(바오로) 신부님

3월 4일(토) 구속주회 한상우(바오로) 신부님께서 특강을 해주셨다. 신부님은 복음 말씀과 일상의 체험담을 엮어 순교 영성을 풀어내셨다. 자기 방식과 자기 의지를 내려놓는 것, 사랑받는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느님께서 저마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등이 순교자들의 영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의 바탕은 기도이며 기도를 통해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으신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기도라고 하셨다. 신부님은 강의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바라보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해주셨다.

■ 국내성지순례

2017년 관덕정 성지순례가 다시 시작되어 3월 19일(일) 43명의 순례객이 전주교구 숲정이성지와 전동성당을 순례했다.



전동성당

■ 2017년 교회사 강좌 및 영성특강 안내

월 / 일	주 제
2월 4일 (토)	김태형(베드로) 신부님 - 영남교회사연구소 소장, 유천성당 주임사제
3월 4일 (토)	한상우(바오로) 신부님 - 지극히 거룩한 구속주회
4월 1일 (토)	나경환(시몬) 신부님 - 수원교구, 수원성지 담당, 북수동성당 주임사제
5월 13일 (토)	김정환(세례자 요한) 신부님 - 대전교구, 내포교회사연구소 소장
6월 3일 (토)	박대종(디오니시오) 신부님 - 베네딕도회, ★ 그레고리오 성가 미사 봉헌
7월 1일 (토)	조명연(마태오) 신부님 - 인천교구, 갑곶순교성지 담당사제
8월 5일 (토)	미 정
9월 2일 (토)	공한영(고스마) 신부님 - 안동교구, 정상동성당 주임사제
10월 14일 (토)	김창훈(다니엘) 신부님 - 제주교구, 성지개발위원장
11월 4일 (토)	김경수(사도요한) 신부님 - 전주교구, 나바위성당 주임사제
12월 2일 (토)	한건(도미니코) 신부님 - 부산교구, 부산교회사연구소 소장

여러분의 정성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 24일부터 2017년 3월 23일 기간 안에 후원회비를 납부해 주신 분들입니다.

평생 회원

故강점순 故권영태 故김성권 故김시열 故김인숙 故김일남 故김일예 故김점술
故박범종 故박병용 故박정숙 故박준수 故백영희 故봉원식 故서영진 故선말자
故손윤구 故신창용 故신태조 故안영락 故윤상현 故윤종수 故이병문 故이수걸
故이승태 故이영수 故이우동 故이정우 故임금화 故장귀분 故전석운 故조복수
故최종호

강양수 강외순 구순옥 구정자 김복이 김상범 김순자 김용식
김유식 김은숙 김점주 김정숙 김태남 김호선 김호순 김화선
남입현 노경숙 노경자 노근철 노남순 노병연 노정태 류영수
문순태 문영희 박화순 배옥조 손운조 우복노미 유용희 이근필
이명순 이석택 이화우 임몽란 장애령 조성무 최종희 홍성재

가족 회원

강춘화가족 광정돈가족 권미정가족 권오분가족 금 찬가족 금 훈가족
김명희가족 김무조가족 김복희가족 김영숙가족 김용주가족 김일성가족
김정강가족 김정현가족 김정환가족 김종묵가족 김종업가족 김종운가족
김지수가족 김현태가족 김효정가족 류진춘가족 마윤현가족 문양자가족
문정숙가족 박경진가족 박광범가족 박기석가족 박민호가족 박병화가족
박보현가족 박선영가족 박영미가족 박용철가족 박용택가족 박재석신부가족
박재석가족 박화수가족 박희향가족 배병훈가족 배일환가족 백덕흠가족
백은영가족 백종희가족 서난향가족 서성교가족 서정애가족 손춘자가족
신수영가족 신정향가족 신혜성가족 안규리가족 안상현가족 유종우가족
윤성민가족 윤정순가족 윤현경가족 이강범가족 이상진가족 이성희가족
이수자가족 이숙희가족 이유식가족 이춘달가족 이태연가족 이화선가족
임말례가족 임윤자가족 전남숙가족 전순자가족 전하석가족 정계희가족
정명숙가족 정송이가족 정은숙가족 정화숙가족 조경실가족 조기만가족
조영학가족 최연옥가족 흥태숙가족 황두지가족 황수진가족 황원희가족

일반 회원

강정숙 고은옥 구자연 김계순 김기미자 김분이 김 순 김정숙 김지혜 김태근
 김학열 김해숙 김효준 김희수 남영선 민완기 박광현 박기준 박길락 박옥선
 박정옥 변명옥 성경훈 성진현 손윤자 신경숙 신석순 아가페 안성섭 안승각
 안영재 이경애 이상희 이서희 이옥길 이우정 이윤희 이정호 이호자 임판순
 장정순 전갑생 전계순 전화선 정명란 정연영 제현희 조상이 채수근 최삼기
 표은희 황현걸

※ 성함이 누락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덕정순교자현양사업 후원회

관덕정에서는 순교자현양사업과 순교 신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교 현양 운동과 각종 유물의 발굴, 조사, 연구, 전시, 보관하기 위한 노력에 후원해 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 가입방법

-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 053)254-0151번이나 0159번으로 전화를 주셔서 성함과 세례명, 본당과 주소지, 연락처 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 방문하셔도 됩니다!
- 관덕정순교기념관을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평생회원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별다른 서류가 필요치 않으며, 명함판 사진(없으시다면 얼굴이 잘 나온 일반 사진도 가능) 2매를 준비 해 오시면 됩니다.

관덕정순교자현양사업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회원님께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후원회원들을 위한 생미사와 세상을 떠난 평생회원들을 위한 위령미사가 함께 봉헌됩니다. 망자가 되신 분을 평생회원으로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이외에 평일미사에 위령미사를 3대 봉헌해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께 순교자 현양 및 신심운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관덕정순교기념관의 소식이 담긴 회보를 3개월마다 보내드립니다. 순교기념관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초대합니다. 연말 세금공제를 위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후원금 납입방법

- 납부계좌 : 대구은행 006-10-011249 (예금주 : 대구관덕정순교기념관)
 - ※ 회비를 송금해 주시는 분들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 송금 후 꼭 사무실로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 자동이체 : 거래하시는 은행에 거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가셔서 저희 대구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신청이 됩니다.
 - ※ **자동이체 신청 후에도 사무실로 꼭 연락주십시오.**
 - ※ 자동이체 신청시 일반회원 : 월 2,000원
 가족회원 : 월 5,000원

■ 후원회비

- 일반회원 : 연 20,000원
- 가족회원 : 연 50,000원
- 평생회원 : 연회비 없이 일백만원 이상을 기탁

- 관덕정 미사안내 -

- 화요일 : 오전 10시
- 금요일 : 오후 3시(순교자현양미사)
- 토요일 : 오후 5시(주일미사)

※ 첫째 주 토요일은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